

# 중국의 고상식 계사 현장을 가다

평사에서 고상식 계사로 전환 추세...  
도계장 위생관리 수준 기대 '이상'

편집부

지난 11월 19일(금)부터 11월 21일(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대련을 다녀왔다. 국내에서 고상식 계사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주)건지의 곽춘욱 대표의 초청을 받아서였다. 둘러본 곳은 닭고기 계열업체인 '대성식품집단(이하 대성)'과 '용성식품집단(이하 용성)'의 도계장 및 관련 농장들이었다.

## 중국의 대표 육계 계열화 업체인 '대성'과 '용성'

둘러본 소감은 한 마디로 예상 밖이었다. 도계장들은 규모가 크고 위생적인 관리수준이 평소 짐작했던 수준 이상이었다. 다만, 부분육 처리과정은 기계화가 미흡하여 수백 명의 작업인력이 투입되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농장들은 10동~20동 규모로 단지화되어 있었다. 계사를 종래의 평사방식에서 고상식의 새로운 계사로 전환한 이후에 질병이 많이 줄고, 출하율이 2~3% 늘었다고 한다.

계분은 스크래퍼를 통해 거출한 후에 옥수수대 등과 함께 자체 발효시켜 일본으로 수출하기도 한다.

'대성'의 경우는 대만기업으로, 대련 도계장의 1일 도계량은 12만수 수준이었다. 중국 전체로는 10개 도계장에서 월간 2천만수를 도계하는 규모의 회사이며, 대련지역만 해도 보통 3~5천수 규모의 계열농가가 500~600호라고 한다.

직영농장에서는 사료요구율 1.92, 출하율 94~95%이며, 사육일수는 43일에 2.65~2.75kg 수준으로 출하한다고 한다.



용성식품집단 계열농가 모습

‘용성’의 경우는 연간 도계량이 직영농장 1천만수, 계열농가 3천만수로 함께 4천만수 규모였다. 닭 출하가격은 500g당 4.8위안이며, 농가 생산원가는 4.6위안인 상태이며, 연평균 농가 이윤은 kg당 0.5~0.6위안이라고 한다.

닭다리는 전부 수출하고 있으며, 매년 닭고기 수요가 늘어서 50~100동씩 계사를 신축한다고 한다. 견학한 직영농장은 20동에서 27만수를 사육 중이었으며, 자체 계분 발효장도 설치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병아리 품종이 모두 아바에이커라고 한다. 종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66주 동안 135개의 종란을 만들어내고, 부화율은 85~90%라고 한다. 우리 일행이 가본 곳은 14동에 7만수를 사육 중이었고 3단 케이지식이라고 했다. 방역우려 때문에 들어가진 못했으나, 외관도 괜찮아 보였다.

#### 평사에서 고상식 계사로 전환 추세

고상식 계사는 지상 50cm 정도의 높이에 목재나 철근을 이용해 계사의 바닥을 형성해놓

고, 그 위에 플라스틱망을 평평하게 깔아 육계를 사육하는 방식이다.

초기 병아리 입추시에는 그물망으로 닭발이 빠지지 않는지 물었더니, 신문지를 한번 깔아 놓으면 해결된다고 한다. 병아리가 크면서 깔린 신문지도 차츰 찢개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평사에서 고상식 계사로 급전환되고 있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도 고상식 계사를 도입하면 닭이 계분과 분리되어 생활할 수 있어 위생적인 닭 사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육 소비 증가 추이에 따라 대형닭 사육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계사 시설 혁신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도입초기의 시설비용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깔짚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체적인 생산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1~2년 사육 후에는 그 이상의 수익으로 메울 수 있다고 한다. 